

[4차시] 말을 가려 써야 뜻이 통한다



1. 첫째, 첫 번째

“자 나란히 서세요. 왼쪽에서 다섯 번째 사람, 좀 웃어보세요” 사진을 찍을 때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왼쪽에서 다섯 번째 사람’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왼쪽에서 다섯째’라고 해야 합니다. 사물의 차례나 등급을 이야기할 때는 ‘첫째, 둘째, 셋째...’를 써야 합니다. 사람이나 물건이 나란히 열거돼 있을 경우 ‘셋째 줄의 둘째 책상’ ‘오른쪽부터 셋째 사람’ 등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반에서의 석차, 태어난 형제나 일의 순서, 책의 차례 등도 이 같은 표현을 할 수 있는 예입니다. ‘장한 둘째 아들’ ‘언어학 개론 셋째 장(章)’ ‘전교에서 첫째’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달리 ‘첫 번째, 두 번째...’는 연이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의 횟수를 나타냅니다. ‘성남 일화와 울산 현대의 두 번째 축구 경기’ ‘트랙을 세 번째 돌고 있는 황영조 선수’ ‘미국을 네 번째 다녀오신 선생님’ 등이 ‘번째’를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2. -함으로, -하므로

‘-하므로’는 ‘-하기 때문에’라는 뜻으로 까닭, 이유를 나타냅니다. ‘-함으로’는 ‘-하는 것으로’라는 뜻으로 수단과 방법을 나타냅니다. ‘-함으로’에는 ‘씨’가 붙을 수 있으며 ‘씨’를 붙임으로써 그 뜻을 더욱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므로’에는 ‘씨’를 붙일 수 없습니다. “철수는 지금 글라이더를 만들므로 같이 놀 수 없다”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므로 이에 표창장을 줍니다” “외국어로 된 제품 설명서를 번역해야 하므로 응시자는 외국어 능력을 꼭 갖춰야 한다” 등이 ‘-하므로’를 쓰는 용례입니다. 각각 ‘만들기/되기/하기 때문에’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함으로써 비로소 마음 놓고 마시게 됐다” “그는 의술을 배품으로써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나는 노래를 실컷 부름으로써 외로움을 달랬다” 등이 ‘-함으로써’ 또는 비슷한 형태로 ‘-으로씨’가 들어간 예입니다. ‘제거하는/배품는/부르는 것으로씨’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4차시] 말을 가려 써야 뜻이 통한다



※ 심화학습

-으로써, -으로서

‘-으로써’는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격조사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써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했다” “그가 하는 말이라면 콩으로써 메주를 쏜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 등처럼 쓰입니다.

‘-으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입니다. “자식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다” “사람으로서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나” “의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등처럼 사용됩니다.

3. 쫓다, 좇다

‘다람쥐 쫓던 어린 시절’처럼 ‘쫓다’나 ‘좇다’가 나오면 어느 것을 써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무엇을 잡기 위해 따라가는 일에 ‘쫓다’를 씁니다. ‘다람쥐를 쫓다’ ‘잠자리를 쫓다’ ‘나비를 쫓다’가 이런 경우입니다. 자리에서 떠나도록 억지로 몰아낼 때도 ‘쫓다’를 사용하며 ‘참새떼를 쫓다’ ‘악귀를 쫓다’가 그런 예입니다. ‘좇다’는 대체로 추상적인 것에 쓰입니다. 남의 의견, 뜻, 이론을 따르거나 무엇을 눈여겨볼 때 ‘좇다’를 씁니다. “부모님의 의견을 좇기로 했다” “서쪽으로 날아가는 기러기 떼를 좇고 있으니 마음이 서글퍼지는구나”와 같이 사용됩니다. ‘꿈을 좇아 한국에 왔다’처럼 목표, 이상, 행복을 추구할 때도 ‘좇다’를 씁니다.

결국 ‘쫓다’는 구체적인 행동과 공간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이지만, ‘좇다’는 추상적인 사실(대상)을 추구하거나 따라 하는 것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쫓다’와 ‘좇다’를 구분하고, ‘쫓다’에서 나온 ‘쫓기다, 쫓아가다, 쫓겨나다·쫓아내다’ 등은 ‘쫓다’에 준해 사용하면 됩니다.

4. 구설, 구설수

‘구설수(口舌數)’는 ‘시비하거나 헐뜯는 말을 듣게 될 운수’를 뜻합니다. 구설수, 손재수, 관재수 등처럼 주로 운세에서 나오는 말로 ‘구설수가 있다[끼었다]’ 등의 예로 쓰입니다.

[4차시] 말을 가려 써야 뜻이 통한다



그 밖에 ‘누가 무슨 일(말)로 구설에 올랐다’처럼 남들의 입에 좋지 않게 오르내리는 경우엔 ‘구설’이라 해야 합니다. ‘구설수’의 ‘수(數)’가 ‘운수’ ‘신수’를 뜻하므로 ‘구설수에 올랐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구설에 올랐다[휘말렸다]’고 해야 맞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운세란이 아니더라도 ‘구설’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고위층 인사들이 심심찮게 ‘구설’에 오릅니다. 국가의 중대사나 정책 사업 등에 대한 불필요한 말이나 말실수로, 또 일부는 뇌물 수수 의혹이나 잘못된 처신으로 ‘구설’에 오릅니다. 이런 경우 ‘구설수에 오르다’가 아니라 ‘구설에 오르다’는 표현을 쓴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5. 비치다, 비추다

일반적으로 ‘비치다’는 목적어를 갖지 않고, ‘비추다’는 목적어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속이 비치는 분홍빛 여자 속옷’에서는 목적격 조사(-을/-를)가 나오지 않으므로 ‘비치다’를 쓰고, ‘가로등이 거리를 비추었다’에서는 목적격 조사가 나오므로 ‘비추다’를 씁니다.

“내 눈에는 그의 행동이 상사에 대한 아부로 비쳤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를 무시하는 것으로 비칠까 봐 말과 행동을 조심스럽게 했다” “글씨를 그렇게 흘려서 쓰면 성의 없는 사람으로 비치기 쉽다” 등은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비치다’를 쓰는 경우입니다.

“달빛이 비치는 밤인데도 그믐에 가까워 골목길이 캄캄해서 손전등으로 거리를 비추며 문밖으로 나섰다”에서는 ‘거리’라는 목적어가 있으므로 ‘비추다’를 쓴 것입니다. “난로에서 새어 나오는 불빛이 마루를 비추고 있었다”도 목적어를 동반하기 때문에 ‘비추다’가 쓰였습니다.

※ 심화학습

비치다, 비추다

일반적으로 ‘비치다’는 목적어가 없을 때, ‘비추다’는 목적어가 있을 때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비치다’가 목적격 조사를 동반하는 경우입니다.

[4차시] 말을 가려 써야 뜻이 통한다



주로 ‘-에/에게 -을’ 형태로 쓰여 ‘얼굴이나 눈치 따위를 잠시 또는 약간 나타내다’라는 뜻 (너무 바빠 집에 얼굴을 비칠 시간도 없다)과 ‘의향을 떠보려고 슬쩍 말을 꺼내거나 의사를 던지시 깨우쳐 주다’라는 뜻(이번 선거에 출마할 의향을 어느 정도 측근들에게 비쳤다)을 나타냅니다. 이때는 목적격 조사가 있지만 ‘비추다’를 쓰지 않고 ‘비치다’를 씁니다.

반대로 ‘비추다’가 목적격 조사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에 비추어’ 꼴로 쓰여 ‘어떤 것과 관련해 견주어 보다’의 의미(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업은 성공하기가 어렵다)를 나타냅니다. 이때는 목적격 조사가 없지만 ‘비치다’를 쓰지 않고 ‘비추다’를 씁니다.

6. 늘이다, 늘리다

양을 ‘늘려야’ 하는 것일까, ‘늘여야’ 하는 것일까. 많은 사람이 ‘늘이다’와 ‘늘리다’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늘이다’는 ‘고무줄을 늘이다’ ‘엿가락을 늘이다’ ‘바지 기장을 늘이다’ ‘새끼 줄을 늘이다’와 같이 길이를 본디보다 길게 할 때 쓰입니다. ‘늘이다’는 또 ‘주름(발)을 늘이다’처럼 아래로 처지게 할 때도 쓰입니다.

‘늘리다’는 ‘학생 수를 늘리다’ ‘살림을 늘리다’ ‘세력을 늘리다’ ‘체중을 늘리다’ ‘쉬는 시간을 늘리다’와 같이 수량·재산·세력·능력 등이 원래보다 커지거나 나아질 때 또는 시간이 길어질 때 쓰입니다.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고무줄과 같이 길이에 관계되는 것에 ‘늘이다’를 쓰고, 수와 양 등 그 외의 것에는 ‘늘리다’를 쓴다고 단순화해 생각하면 쉽습니다.